통신서비스업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1. 주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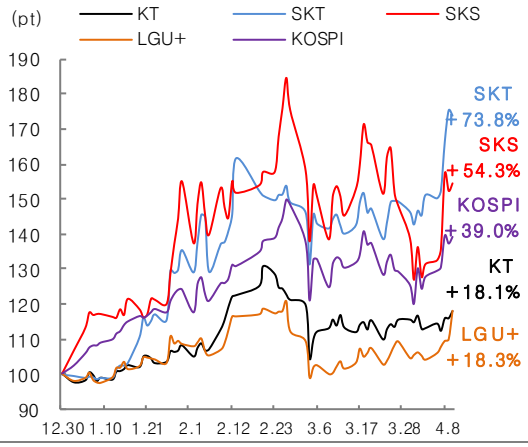
기업	25/12/30	04/03	04/10	연간 상승	수익률	주간 상승	수익률	12MF DPS	배당수익률	주간 그래프
SKT (017670)	53,500	80,900	93,000	▲ 39,500	▲ 73.8%	▲ 12,100	▲ 15.0%	3,320	3.6	
SK스퀘어 (402340)	368,000	483,000	568,000	▲ 200,000	▲ 54.3%	▲ 85,000	▲ 17.6%			
KT (030200)	52,600	59,500	62,100	▲ 9,500	▲ 18.1%	▲ 2,600	▲ 4.4%	2,600	4.2	
LGU+ (032640)	14,720	15,330	17,410	▲ 2,690	▲ 18.3%	▲ 2,080	▲ 13.6%	700	4.0	
KOSPI	4,214.2	5,377.3	5,858.9	▲ 1,644.7	▲ 39.0%	▲ 481.6	▲ 9.0%			

주가 Comment

- 주가 코멘트: **통신이 대장주다.**
- 통신 주간 +10.6%, KOSPI +9.0%. YTD 통신 +38.3%, 지수 +39.0%. 지수를 거의 다 따라 잡음
- 2/27 지정학 이슈 부각 후 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통신이 방어 역할 수행. SKT +16.5%, LGU+ +5.3%, KT -2.7%, 지수 -6.2%
- SKT는 Anthropic 지분 가치 부각으로 반도체와 같은 방향성을 보이는 가운데, 실적 및 배당 정상화라는 안정적인 투자 포인트까지 더해지며 YTD 및 2/27 이후 모두 지수를 크게 압도. KT와 SKT도 2/27 이후는 지수를 아웃퍼폼 하면서 안정적인 방어 역할 수행
- 25년 해킹 이슈에 따른 가입자 등락과 마케팅 영향으로 1Q26 실적은 다소 slow하게 시작될 전망이나, 연간 전망은 양호
- 26년 3사 합산 영업이익은 5.1조원(+14% yoy)으로 20년 만에 5조원대 이익 복귀 전망. 밸류에이션, 주주환원 감안시 KT, SKT 순으로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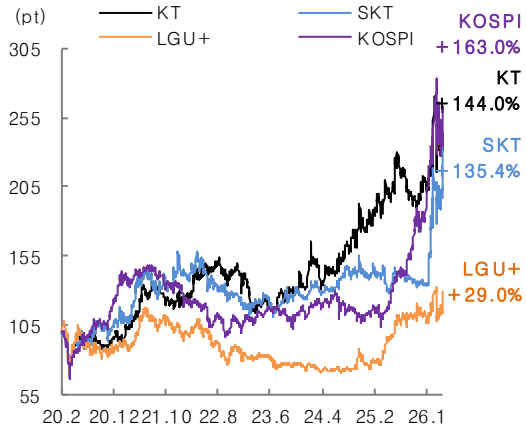
2. 주가 차트

26년 YTD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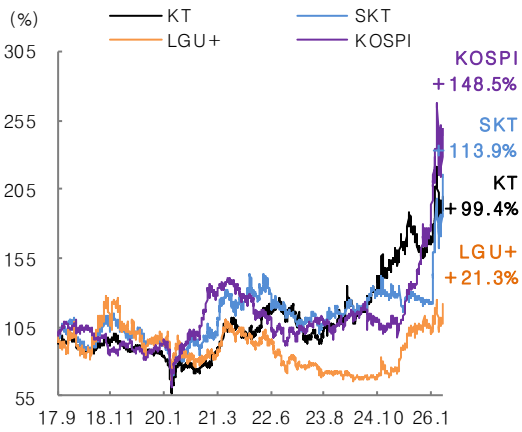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2/6))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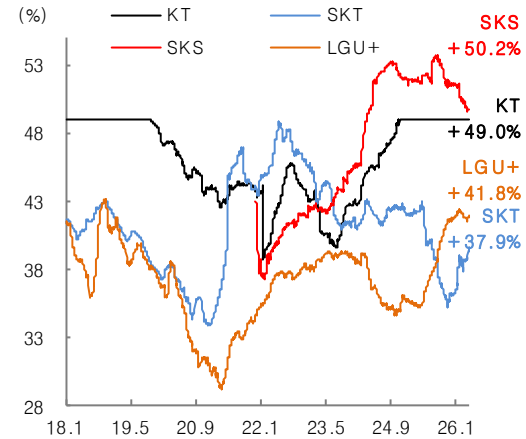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7.9월 선약할인률 상향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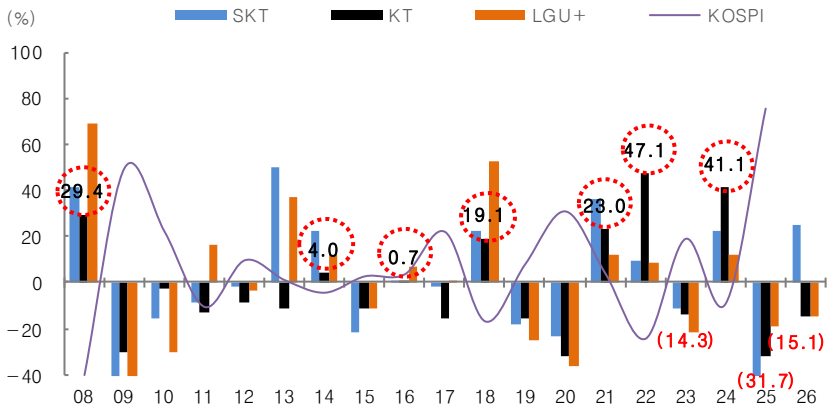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인 지분율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YTD 주가 상승률(KOSPI 대비 상대 수익률).
SKT +73.8%(+25.0%), KT +18.1%(-15.1%), LGU+ 18.3%(-14.9%)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6년초부터 SKT의 급등으로 26.2월 기준 통신업은 KOSPI 대비 아웃퍼폼

	SKT	KT	LGU+	KOSPI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19	(11.7)	(9.4)	(19.5)	7.7	(18.0)	(15.9)	(25.3)
20	0.0	(11.1)	(17.3)	30.8	(23.5)	(32.0)	(36.7)
21	41.0	27.5	15.7	3.6	36.1	23.0	11.7
22	(18.1)	10.5	(18.8)	(24.9)	9.0	47.1	8.2
23	5.7	1.8	(7.4)	18.7	(11.0)	(14.3)	(22.0)
24	10.2	27.5	1.0	(9.6)	21.9	41.1	11.7
25	(3.1)	20.0	42.5	75.6	(44.8)	(31.7)	(18.9)
26	73.8	18.1	18.3	39.0	25.0	(15.1)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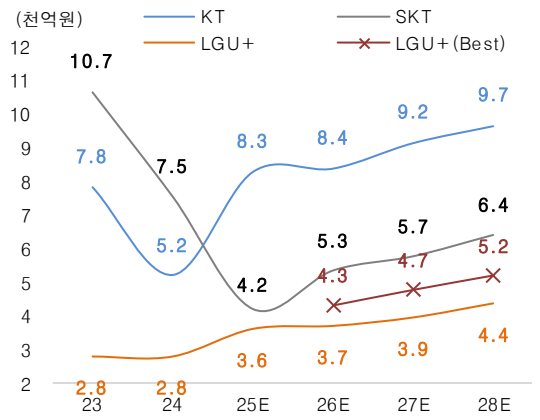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파란색 음영은 통신3사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주황색 음영은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이 (+)이면서 가장 높은 기업

3. 주간 코멘트

LGU+ OTT 사업 종료, KT-Palantir 첫 합작품, LGU+ 유심 무료 교체, 단통법 후속 시행령, 통신3사-과기부 간담회	
LGU+ LGU+ OTT 사업 종료	1. LGU+가 U+모바일tv 서비스를 5월 종료하며 통신 3사의 독립 모바일 OTT 사업 모두 종료. IPTV 중심 신규 서비스 전환 통해 미디어 사업 구조 재편 추진 2. 신규 서비스 U+tv모바일은 IPTV와 모바일 연계 기반으로 VOD 소비 확대와 이용 경험 통합을 목표로 설계된 구조. 스마트폰과 IPTV 간 콘텐츠 이용과 제어 기능 결합된 서비스 모델 3. SKT 옥수수의 웨이브 통합, KT 시즌의 티빙 이관 이후 LGU+까지 OTT 철수. 시장 재편. 통신사 자체 OTT 경쟁력 약화 속 플랫폼 통합 중심 산업 구조 형성 4. U+모바일tv 이용자는 22년 173만명에서 26년 83만명 수준으로 감소. 넷플릭스 이용자 대비 약 19배 격차 확대된 상황에서 경쟁력 약화 확인 5. OTT 시장은 글로벌과 국내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며 콘텐츠 투자 부담과 규모 경쟁 심화된 환경 형성. 통신사 단독 OTT는 가입자 확보와 수익성 확보 모두 어려운 구조 6. LGU+는 IPTV 가입자 증가에도 VOD 매출 감소로 수익성 한계 확인하며 사업 전략 전환 필요성 확대. 모바일과 IPTV 결합 통한 이용 활성화와 수익 구조 개선 시도
긍정적	▪ 통신사 자체 OTT는 요금제의 부가서비스 전략으로 시작되었으나, 의미 있는 규모로 성장하기 위한 투자 부족으로 타 OTT에 통합 ▪ 그래도 이러한 시도를 통해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는 간접적인 효과는 발생
KT KT-Palantir 첫 합작품	1. KT가 Palantir와 첫 협력 프로젝트로 AI 기반 고객 관리 솔루션 개발 착수. 고객 이탈 방지 중심의 데이터 분석 활용 서비스 고도화 전략 추진 2. 해당 솔루션은 고객 이용 패턴과 상담 이력, 네트워크 품질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구조. 이탈 가능성 높은 고객 사전 식별과 맞춤 대응 전략 제시하는 해지 방어 기능이 핵심 3. KT는 Palantir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 서비스 개선과 마케팅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및 고도화 추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강화와 운영 효율성 향상이라는 내부 혁신 목표 4. 양사는 25년 프리미엄 파트너십 체결 이후 기술 공동 개발과 내재화 가능한 협력 구조 구축 진행. Palantir 엔지니어 인력 일부가 KT에 합류하며 조직 내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5. KT는 Palantir 플랫폼을 도입해 업무 생산성과 데이터 처리 효율을 개선하며 AX 전환 가속화 추진. 고객 관리 영역을 시작으로 전사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대 전략 전개 6. 향후 협력은 국방과 금융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며 기술 검증 단계 병행.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통신사의 역할이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 가능
긍정적	▪ AI 산업을 Layer로 구분하면, 가장 기반이 되는 인프라, LLM 등의 미들웨어, 그리고 실제 생활에 사용되는 B2C 및 B2B 모델로 구분 ▪ KT와 Palantir간의 협업은 미들웨어 영역에서 솔루션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과정
LGU+ LGU+ 유심 무료 교체	1. LGU+가 유심 업데이트와 무료 교체를 위한 매장 방문 예약 시스템을 앱과 홈페이지에 도입하여 대응. 초기 수요 집중에 따른 대기 혼잡 완화와 서비스 효율 개선 목적 2. 예약 시스템은 U+one 앱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매장과 시간 선택 가능한 구조로 설계된 이용 방식. 고객은 사전 예약을 통해 대기 시간 감소와 안정적 서비스 이용 가능 3. LGU+는 13일부터 전 고객 대상 유심 업데이트와 무료 교체를 순차 진행할 계획. 사전 안내를 위해 1,641만건 문자 발송 완료 및 고객별 절차 정보 제공된 커뮤니케이션 제공 4. 전사 고객케어상황실 가동 통해 유심 재고와 매장 운영, 문의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운영 체계 구축. 서비스 안정성과 대응 속도 확보 위한 실시간 점검 기반 관리 방식 적용 5. 유심 교체 정책은 보안 강화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조치로 추진. 안정적 교체 진행과 서비스 경험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 회복 필요성 강조
긍정적	▪ 해킹 사고로 인한 고객 신뢰 하락을 회복하기 위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하는 것은 긍정적 ▪ 또한, 유심교체의 원인 중 하나가 ISIM에 휴대폰 번호가 노출되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5G-SA를 도입하겠다는 후속조치 또한 긍정적
산업 단통법 후속 시행령	1. 방송미디어통합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 개최를 앞두고 단통법 폐지 후속 시행령 검토 착수. 위원 6인 구성 완료로 의결 정족수 충족하며 정상 운영 체계 2. 첫 안건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비가 유력하게 거론되며 단통법 폐지 이후 제도 공백 해소 목표. 첫 회의 안건이 정책 방향성을 상징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이례적 선택으로 평가 3. 단통법은 14년 도입 이후 25년 폐지되며 지원금 규제 중심 제도에서 시장 자율화 방향으로 전환. 그러나 시행령 미정비로 편법 지원금 등 시장 혼선 발생하며 후속 조치 필요성 확대 4. 기존 방통위 체제에서 위원 공백으로 정책 의결 지연되며 제도 정비가 장기간 미뤄진 구조적 문제 존재. 이번 회의를 통해 누적된 법령 정비와 정책 현안 처리 본격화 기대 5. 위원장은 방송3법 등 공영방송 구조 개편과 함께 통신 정책 병행 추진의 필요성 언급. 향후 시행령 정비 과정에서 규제와 시장 자율 간 균형 설정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
중립적	▪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
산업 통신3사-과기부 간담회	1. 이동통신 3사가 정부와 간담회를 통해 기본통신권 보장과 AI 투자 확대 공동선언 발표. 신임 대표 체제 이후 첫 공식 회동으로 통신 산업 방향성 재정립 2.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 대응 방안 중심의 논의 진행. 정부는 단순 개선을 넘어 체감 가능한 수준의 쇄신과 보안 강화 요구 3. 핵심 과제로 기본통신권 보장과 정보보안 체계의 전면 강화 제시. 보안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강조. 통신 인프라의 공공성과 안전성 강화 요구 확대 4. KT는 보안 조직을 CEO 직속으로 재편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 통한 대응 체계 강화 방향 제시. LGU+는 제로트러스트와 클라우드 기반 보안 고도화, SKT는 신뢰와 AI 중심 전략 강조 5. 정부와 통신 3사는 CEO 협의체를 정례화해 보안과 투자 확대 논의를 지속하는 협력 구조 구축 계획. 기업 간 경쟁을 넘어 협력 기반 산업 대응 체계 전환 6. AI와 정보보호 분야 투자 규모를 약 15% 확대할 계획. 기술 경쟁력 강화 의지 표명. AI 인프라와 보안 역량 중심 산업 구조 전환 속 통신사의 역할 확대 기대
중립적	▪ AI 등 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 논의는 긍정적. 다만, 요금 관련한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판단 ▪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과거에는 인위적인 요금 인하를 강요했다면, 지난 몇 년간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요금제 확대를 요청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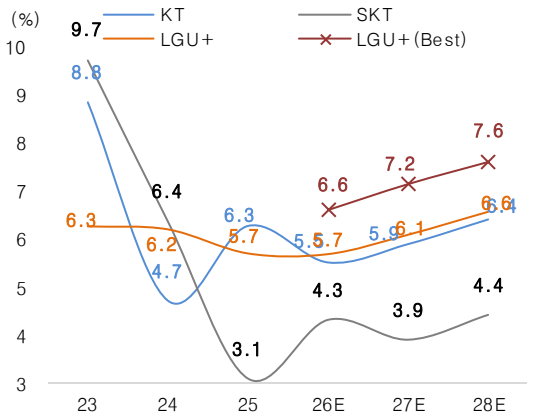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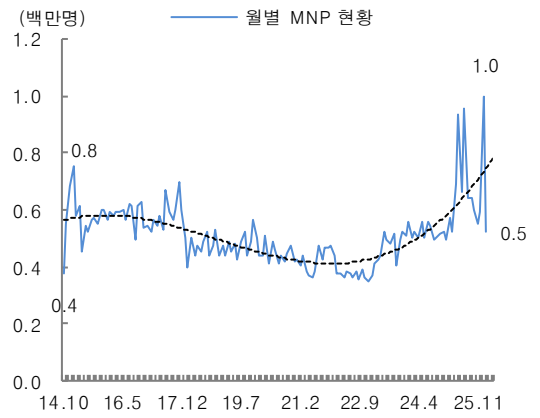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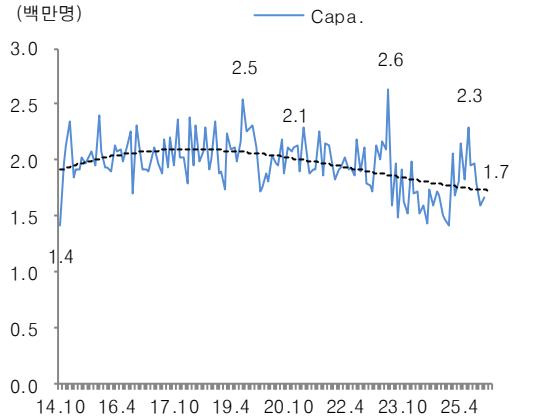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번호이동(26.2월) 521천명, -479천명 mom. 25년 평균 656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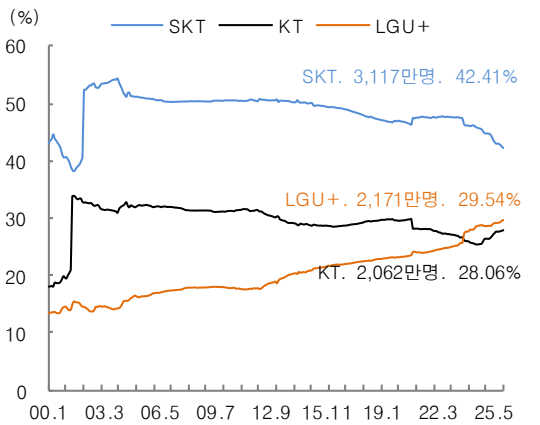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apa.(신규 + 번이 + 기변) 167만명(25.12월). 24년 평균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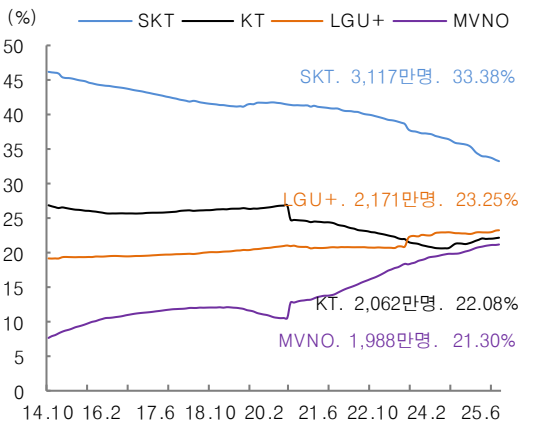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5.12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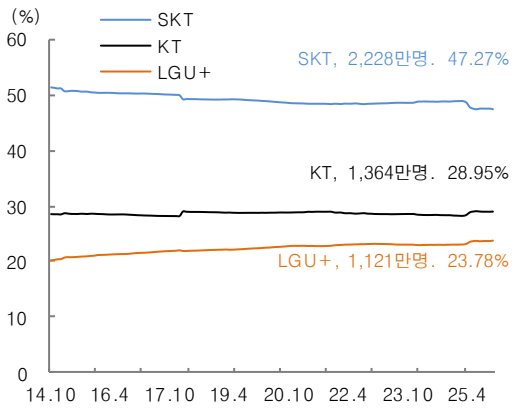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5.12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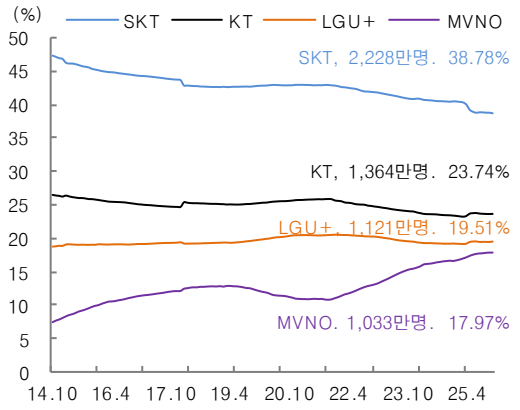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5.12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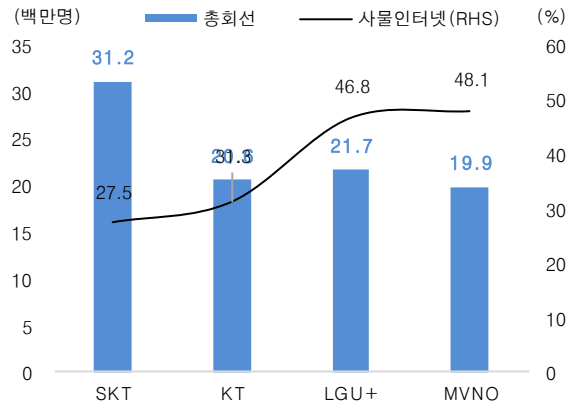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5.12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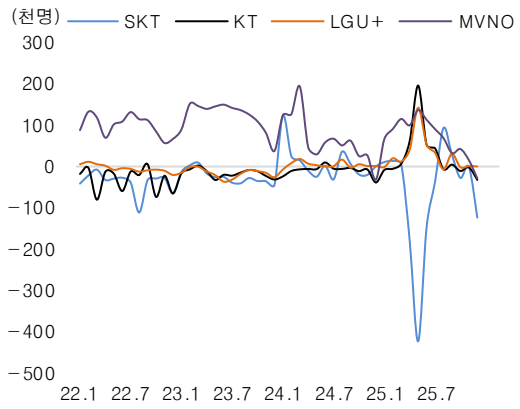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vs. 사물인터넷 비중(25.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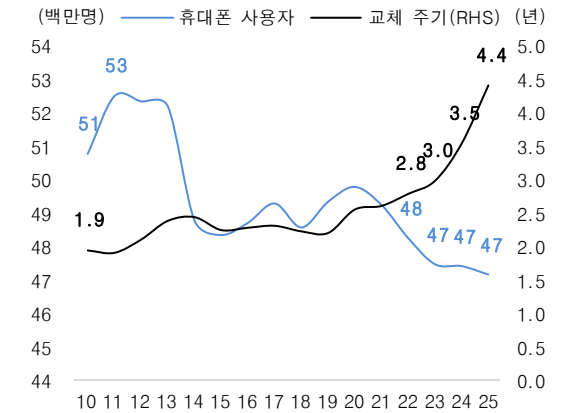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순증(25.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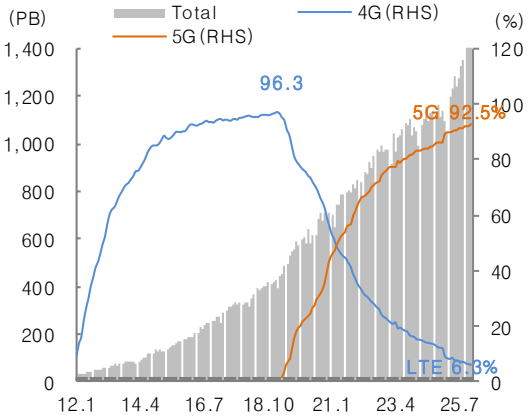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교체주기 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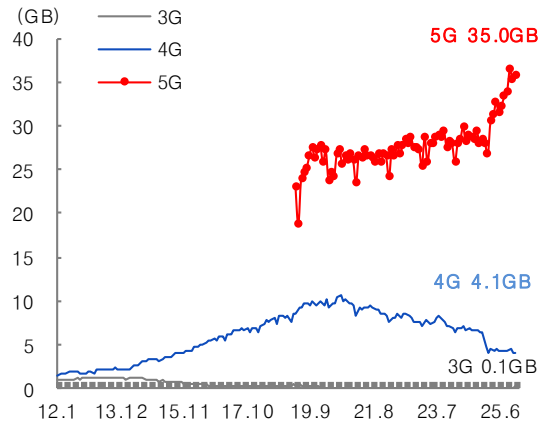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비중 92.5%(25.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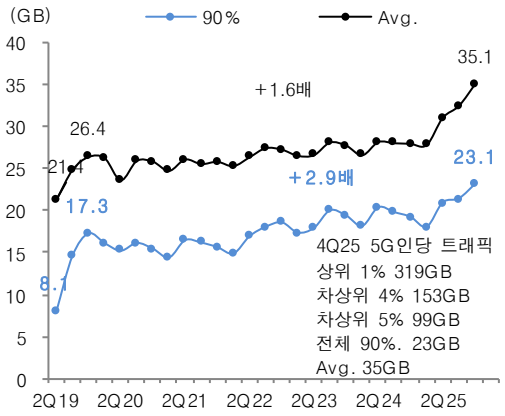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인당 월평균 5G 트래픽 35.0GB(25.12월), +511MB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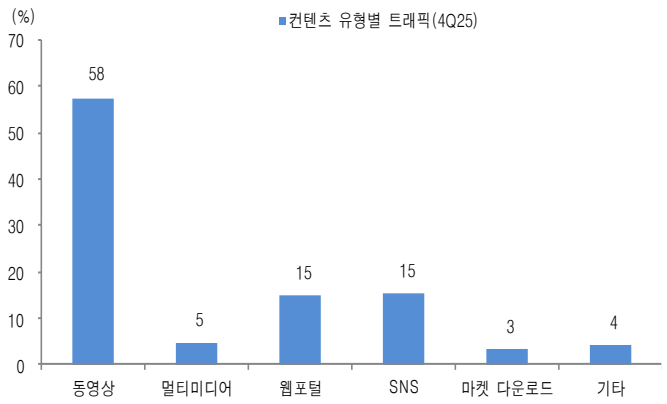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추이(4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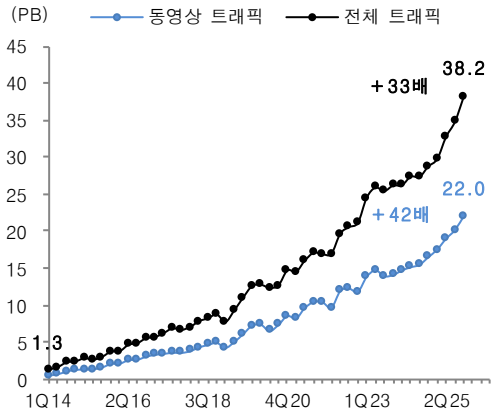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컨텐츠 유형별 트래픽(4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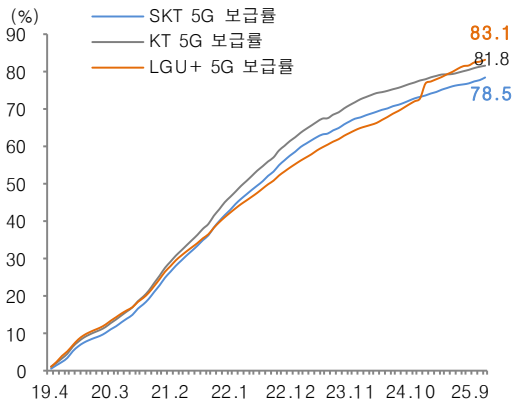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동영상 트래픽 vs. 전체 트래픽(4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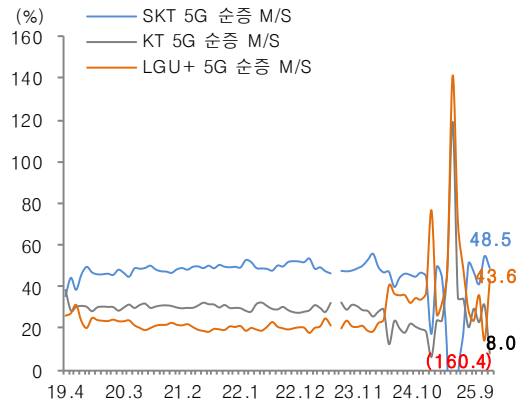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대비 5G 보급률 80.5%(25.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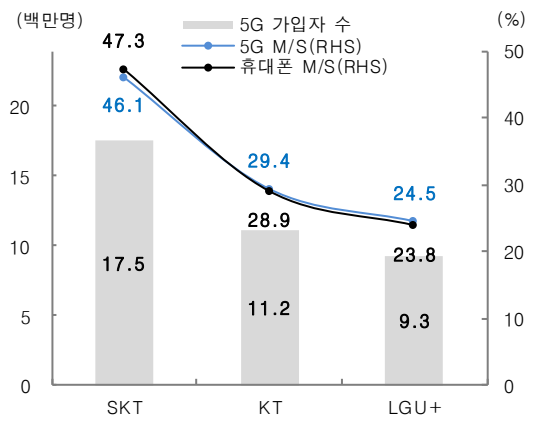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순증 점유율(25.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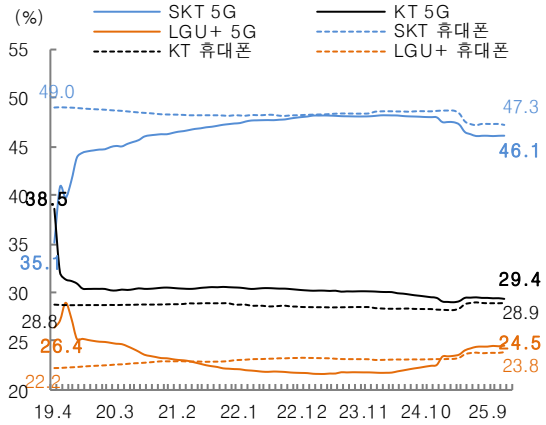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5.12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5.12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회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